

##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업무 One-line system



조 상 치

1972년 11월 28일은 외환은행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One-line system을 원격지 연결에 성공한 날이다. 즉 동행에서는 본점 영업부와 시내 일부지점의 보통예금에 대한 One-line system적용은 이미 성공한 상태로서 지방지점을 확대적용하려고 인천지역을 먼저 시도하다가 고압선등의 회선장애가 너무 심하여 유보하고 오히려 가장 먼 부산지점과 연결하여 역사적인 성공을 하였다. 따라서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정부 고위층(국무총리)까지 초청하여 One-line system 개통 스위치 on과 축하 리셉션을 갖고 매스컴을

---

약력 : •59~64 한국은행 •76~77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77~96 한국외환은행 •현재 에스에스통상 고문

많이 타는 행사를 가졌다. 당시 삼일빌딩의 3층 전산실 옆 회의실에서 수많은 하객을 모시고 개통 브리핑 하던 장면과 그 흥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었다. 그 뒤 1982년 11월 28일 필자가 사무관리부장(서리)시절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은행 간부들과 축하한 기억도 생생하다.

필자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단지 최초의 One-line system 개통 소개에 목적이 있지 않고 당시의 환경과 system 내용을 소개하여 현재 환경과 비교할때 그토록 소규모의 computer로 대형의 system을 개발 운영한 사실을 소개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Hardware는 “NCR CENTURY-100”으로 32Kbyte의 주기억 용량으로 Dual Disc system과 M/T 2대, Printer 1대 등이었으며, Software는 필자가 팀장으로 행원 3명과 일본 NCR 회사에 1년간 연수겸 개발 목적으로 파견되었고 국내 개발 및 test 등 18개월 정도에 모든 project를 완료하고, 1972년 9월 본점 영업부의 보통예금업무를 적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서울시내 지점중에서 본점과 가장 가까운 을지로 지점을 적용대상 점포로 정하고 준비하였던바, 당초의 예측과는 달리 거리는 가까운 지점이지만 통신시스템 연결은 매우 복잡하였다. 즉, 삼일빌딩에서 광화문 전화국등 3개의 전화국을 경유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연결로 오히려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일부 시내점포를 적용한 뒤에는 지방지점을 검토하였으며, 거리

도 멀지 않고 지점규모는 대형인 인천지점을 선정하고, 통신회선 연결 test를 하였던바, 당시 통신 전담회사(대흥전기, 현 대흥데이터 시스템)에서 고압선의 전파장애로 매우 힘들다는 결론을 얻게되어 불가피하게 차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가장 원격지인 부산지점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Host computer의 용량을 늘려 NCR CENTURY-200, 주기억 용량 128Kbyte로 확장되었다. 그 당시의 부산까지 통신회선 연결에는 다수의 중계소를 경유하면서 부산지점까지 연결하여 test하는데 협조기관이 많아서 많은 애로를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여 은행업무의 장거리 One-line system의 효시는 물론 국내 통신시스템도 검증된 사실이니까 매우 뜻있는 사업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현재의 PC 보다도 월등하게 소규모 기억장치와 주변 시스템으로 그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데 성공시킨 의미는 우리나라 전산 발전사에 기록되어질 project라고 본다.

당시의 외환은행은 1967년 1월 30일 한국은행에서 분리하여 외국환업무 중심으로 설립되어 고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히 은행이름이 「외환은행」이니까 외국환업무만 취급하는 은행으로 인식하였고(물론 초기 은행신설시의 은행법에도 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의 원활을 위한 특수은행으로 발족하였음) 더욱 한국은행에서 분리된 은행이므로 불친절하고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어 고객의

인지도를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새로운 선진기법인 One-line system 개발을 타 은행보다 빨리 추진하였으며, 시스템이 성공된 후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고객이 몰려왔고, 은행선전 효과는 크게 성공하였다.

특히 초기 One-line system 개발과 더불어 추진한 고객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기 위하여 시스템 이름을 짓는데 고심했던 기억이 난다. 많은 검토끝에 당시 유명한 만화가의 만화를 이용 의인 호랑이가 예금통장을 들고 어느 은행으로 갈까하다가 「외환은행의 자동즉시처리시스템」으로 유도하는 내용은 One-line 번역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시는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료 서비스 하므로써 개인간 송금은 물론 기업들의 자금이동 수단으로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반면 잊혀지지 않는 애로사항도 많았다. 예상외로 많은 고객이 모이고 특히 부산지점의 선원 급여일과 해외 취업자 송금 이용이 많아서 소규모 시스템과 통신설비등의 미비로 잦은 시스템 down과 장애가 발생하여 One-line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점에서는 싸움까지 나고 난장판이 벌어지기 일쑤였고 은행장실까지 항의하여 신문등에서 비난당하면 해당부서 직원들은 오히려 One-line 때문에 은행 망한다고 극한적인 항의까지 하는 등 전산담당자들의 겪은 애로사항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금융 One-line system 발아기의 어려움과 기쁨

의 결실이 오늘날의 화려한 금융시스템을 이루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하면 마음 뿌듯함을 느낀다.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하여 당시에 고생하였던 동료 관계기관에 감사함을 드린다.